학교를 향하여 인권을 날리다!

종이비행기



- by 미류, 선우, 윤성연, 임다희, 제뉴어리, 최자연, 최지은, 필부

[두발과 복장에 대해서]

검은 잔디밭에서 노란 갈대를 말하다!

대한 자육화가 명시되어 있다. 하 요청해 보았다

는 귀에 닿지 않도록, 뒷머리는 교 지어는 더 강화되기도 하였다. 복의 깃에 닿지 않게."

현재 교칙이다. 학교에서 예전에는 하다. 대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 라는 갇힌 채 인권의식을 갖추지│록 노력해야 한다.」 더 심하게 잡았는데 요즘에는 잘 한 체벌의 대안으로 상벌점제로 못했기 때문이다. 잡지 않는다며, 주변 남학교들보다 대체되었다. 홍날두 씨는 체벌이 두발과 복장의 규제 이외에도 는 자신의 학교가 많이 느슨한 것 금지됨에 따라 상벌점제가 도입이 조례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여 원구 지역에서 가장 두발의 규제 학생들이 통제도 되지 않는다며 것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 가 심하다고 소문난 대진고의 규 차라리 체벌하던 때가 나았다고 결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흔들리거 자 '앞머리는 눈썹 전까지, 옆머리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생들 자신도 자신들의 '당연한' 권 는 거의 없게, 뒷머리는 손으로 잡 단지 상벌점제의 특징이 가지는 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겪고 정도.'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1년이 넘은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 더러, 당연히 역효과를 볼 수밖에 지금 노원 지역의 대부분 학교에 구하고 학교 내에서 조례 내용이 없는 제도이다 서는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진고 고 있다. 학칙을 조례에 맞게 개정 학생 강 모 씨의 답이다. 작년 1 "염색이나 파마는 제한해도 머 하지 않았을 뿐더러, 문용린 씨가 월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 벌써 1 리 길이는 자율적으로……, 복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당 년이 넘게 지났다. 비록 교육부에 자율화는 빈부 격차에 따른 차별 은 혀산들과 기존의 투박과 복작 시핵되지 않았으므로 조례는 아직 수 있게 해주었으면...... 에 대한 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다. 그러므 "앞머리는 눈썹 전까지, 옆머리 후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거나 심 규정에 열광한다.심지어 자신들의 기사가 아니었다

가 지향하는 방향과 전혀 다를뿐 의 기사가 아니었다.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며, 자신들에게 완전

다. 상벌점제는 단지 방식을 좀 더 는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언론타안

지난 2012년 8월 31일 서울 영신여자고등학교 지난 2012년 1월 26일 서울학 "학교에서는 법을 지키는 대진 세련되게 바꾼 것으로, 학생들을 (이하 영신여고) 교지편집부 글길(이하 글길)에서 생인권조례(이하 조례)가 통과되었 인이라고 하면서, 학교 자체가 법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교지가 발행되었다. 글길의 교지에는 학생인권 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조례 런 기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완전한 학생

글길의 교지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계획→취재→기사 작성→교정 및 편집→디자인→최종 확인→'결재'→발행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기사를 확인하고 교지 선된 이후 오히려 교칙이 더 강화 서 소송을 걸고, 교육청에서 수정 을 부를 수 있으므로 반대, 하지만 기 나올 때까지 학생이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없 된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정안이 교내에서는 편한 복장으로 입을 ├ 구조이다. 해당 기사의 기자는 글길의 담당 교 사로부터 기사가 수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기사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교사는 민감한 사 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노 로 학교는 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안이라고 확인을 피하기만 하며 결국 확인하지 원 지역에서 대진고등학교(이하 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노원지 마음대로 깎고 복장을 마음대로 못 하게 했다. 발행된 교지에는 영신여고가 지키 진고)에 재학 중인 강 모 씨(18)와 역 대부분 학교는 이전과 별반 달 규제하지 않듯이, 학생들에게도 머│지 않는 사항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교육청 입장 재현고등학교(이하 재현고)에 재학 라진 것이 없다. 조례 공포 이후 리 모양과 복장이 규제되어서는 │은 진보교육감의 입장인 글로 고쳐져 있는 등 전 중인 홍날두(18) 씨에게 인터뷰를 잠시 느슨해지는 듯했던 교칙들이 안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계속 체적인 글의 요점과 주장이 바뀌게 되었다. 삭제 전직 교육부 장관이었던 문용린 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억압받아 와 왜곡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학생의 의도와 씨가 교육감 자리에 오르게 된 이 온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완화된 는 전혀 다른 글로 고쳐진 기사는 더는 학생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 그나마 조례의 효력으로 학교에 한 자율권을 주는 것을 반대하기 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 홍날두 씨가 다니는 재현고의 서의 체벌문제는 많이 줄어든 듯 도 한다. 이는 10년 가까이 학교 │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

-서울학생인권 조례 제2장 제4절 제17조 5항-

이 사례는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서 언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노 되었는데 효과도 별로 좋지 않고 전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론 정보의 왜곡까지 보여주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야 함에도 학교 장이 정보를 왜곡해 버리면 제대로 된 정보가 대 정도 이와 비슷하다. 강 모 씨에게 말했다. 이러한 것에 따라 조례에 나 뿌리 뽑히지 않도록 많은 사람 중들에게 알려질 수 없다. 오히려 은폐, 왜곡에 자신의 학교 두발 교칙에 대해 묻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는 입장은 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또 학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교사와 학생들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 았을 때 한 뭉텅이가 잡히지 않을 문제일 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나가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 요하다. 조례만 만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 체벌이 폐지된 것의 문제가 아니 닌 현재 자기 일이라고 받아들이 니라 인권 교육에도 정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함

-임다희-

'청소년 인권동아리 **호나**

부원을 모집합니다!

학생생활 보단 입시실적이 먼저인 학교에 지쳤다면? 교내 불만사항을 뒷담만 까는 것이 질린다면? 청소할 때만 주인의식을 요구하는 학교가 짜증난다면? 진지하게 토론하고 시원하게 폭로하고 화끈하게 대안을 마련해보자! 화야에서! 대상: 노원구에 사는, 학생,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해요~



연락처: 대표 whaya 010-4083-4987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hwaya

+억울한 인권침해 상황들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필부의 인권 어그로]

청소년의 술·담배, 그 금기를 향해 묻는다

어만으로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 고 가정하더라도, 정말 술·담배의 금지가 타당한가에 새로이 만들어 보급했다. 그리고 그 예절이 지금 한 나는, 역설적이게도, 사회가 청소년 인권을 당연한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마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한 규제'라는 명분에 대한 의 분질서와 나이주의,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던 유학자 국이다'와 같이, 모두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아득한 문이다. 술·담배는 청소년에게 특히 나쁘다. 하지만 들이 정말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예절들을 그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인권의 술·담배가 치명적인 사람은 청소년 외에도 많다. 그 만든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예절'이 정말 우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청소년인권 대표적인 예가 노인과 임산부이다. 특히 임신부의 리가 아무런 고려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진 술·담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에 엄청난 '당연한 것'인가? 정한 청소년인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약영향을 끼친다. 임신부의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네 번째는 규제 방식에 대한 것이다. '와라! 편의

지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싶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일까? 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에 동의하지 못할 두 번째는 술·담배를 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 에게 술·담배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는다. 보 것이고, 심지어 당황하고 분노하기도 할 것이다. 사. 에 대한 의문이다. 어떤 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통 본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임 텐데. 람들은 흔히 이런 것을 '어그로'라고 부른다. 이 글 대부분이 판단하는 것)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걱 어째서 청소년의 술 담배는 이렇게 번거롭고 비효율 로 많은 사람들을 청소년 인권을 향해 어그로를 끌 정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은 다시 한 번 적으로 규제를 하는 걸까? 혹시, 이 법안을 만든 사

것이 바로 술과 담배일 것이다. 편의점에 가도 (비 구선수를 다룬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 이렇게 청소년을 주변 환경에 쉽게 휩쓸리는 타율적 록 '뚫리는' 곳이 있다 해도) 대부분 신분증 검사를 '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날라리', '양아치'와 '인 존재로 바라보는 법이, 정말 청소년을 위한 최선 하며,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갈 때도 숙소에 도착해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그리고 때려야 정신을 차린 의 법일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꼭꼭 숨겨놓은 술·담배를 찾는 다며 그 사람을 두둔한다. 심지어 해당 청소년들의 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규제를 받는데도 술·담배에 부모마저 '훈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처벌을 취 이런 갖가지 의문에 쌓여있다 보면 또 이런 의문이 대한 규제 자체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해당 학생을 든다. 어째서, 한낱 필부마저 궁금해 할 수 있는 점 청소년에게 몇 배나 더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를 용인하던가? 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라는 편견에 가득 연하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의문이다. 담배가 우리 는 금기의 벽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술·담배

인한 태아의 영향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병 점'이라는 웹툰에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규제를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 명까지 있을 정도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악영향 소재로 다룬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만화를 어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권리들이 여전히 남 을 막으려는 노력은 술·담배에 쓰여 있는 경고 문구 보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아있다. 이 글에서는 '이권 어그로'라는 제목 아래. 외에는 거의 없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은 버려두고, 청소년이 숙·단배를 하는 것은 북범이 아니라는 사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당연하게 금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겐 강제로 막을 실에 놀라워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청소년에게 금지된 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는 청소년들을 훈계하며 폭행했다가 입건된 어떤 농'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찬 핑계보다는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인 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 를 너무 일찍 원하게 되어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규제를 합리적 년과 비청소년이 맞담배를 피우는, 지금에는 상상도 눈 앞에 가로막고 있는 금기에 의문을 던질 때가 아 할 수 없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 닐까? 나는 그런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지 러자 유학자들이 담배에도 예절이 필요하다고 말하 만, 청소년의 술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연구 며, '연장자 앞에서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신분이

예전과 비교해보면, 요즘은 '청소년 인권'이라는 단 러나 현재 알려져 있는 연구 결과가 모두 사실이라 '아이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등의 담배의 예절을

> 생각해보라고 조언을 해준다. 하지만 청소년의 술·담 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유혹이 없다면 청소 배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이와 다르다. 담배를 피우 년이 술·담배를 스스로 원하게 될 일은 없을 거다'라

그 이유로는 '술·담배가 특히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걱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걱정되 들이 여태까지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건 '머리를 깎 세 번째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당 는 이성적인 답변 너머로 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

도	전!	청소	:년9	긴권	십:	자밀	물c)					가로퍼즐
9)										1)12)			1.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내는 기부금. 종교학교에서 학생에게 강제하기도 한다. 2. 종교 강요행위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2)			13)				3. 이번 호에서 리뷰를 쓴 책 중 하나.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을 그려냈다. 4. 빈곤·장애·다문화가정·외국인·성소수자 학생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집
													단에 속하는 학생들을 ()이라고 한다.
													5. 종교학교에서 종교수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과목.
							14)			_			6. 영신여자고등학교 합창단의 이름으로, 기합과 선물 상납 등의 인권 침해적인
							14)						관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
		=			3)15)								7.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된 센터.
					3)13)								8.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고 싶은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4)	16)											9. 서울 중 두발자유 등 기본적인 학생인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l"	10)											(힌트 : 화야의 근거지는 어디일까요?)
									5)				10. 이 신문을 발행한 동아리의 이름은?
													11. 학생인권의 가장 대표적인 의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며,
									6)				장 갈망하는 자유이기도 하다. '개성을 표현할 권리'의 일부이다.
									· ·				세로퍼즐
													12.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 이 법의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3.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14. 2004년 대광고등학교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사람
													15. 학생인권의 직접적인 보장을 위해 제정된 조례.
										10)			16.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구분 지어 반을 가르고 수업하는 것.
													17. 인권에 대한 관심, 생각, 고민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7)		17)										20)	18. 재현고에 재학중인 () 군은 인터뷰 기사에 잠시 나와 학교에 대한 불
													평을 토로했다.
									18)				19. 학교의 장. 대부분의 학교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8)											19)		20. 최근 체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그대
													반영되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 그린마일리지라고도 한다.
									11)				(답과 자세한 해설은 화야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waya에 있습니다.
													-미류

동아리의 위계질서

를 했다. 하지만 말로만 환영회일 뿐 1학년 학생에게 벌을 주는 일이었다. 그 이후로는 벌을 주진 않았지만 모임 첫날 벌을 주는 어리석고 못된 관례는 충 격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필자가 재학 중인 서울 영신여 자고등학교의 '한소리'라는 합창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한소리에서도 신입생 환영회를 했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중학생 때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겪었 다. 주변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였고 필자는 속으로 비웃으며 차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 이후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모른 척했다는 이유로 겨 우 1살 연상인 선배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선배와 마주치고 싶

중학교 시절 합창단에 들어갔다. 그 동아리에서는 모임 첫날 신입생 환영회 이 지 않아 파트도 다르게 신청해보았지만 결국 낮은 파트로 같은 파트에 들어가 게 되어 괴로웠다. 또 3학년 선배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한소리는 인원 수가 많아 같은 학년에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고 선배들 얼굴은 더 외우지 못 했는데 왜 인사를 강요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잘 알지도 못 하는 선 배들에게 선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 금액이 삼만 원, 오만 원 정도로 학생에

> 필자는 2학년에 진학할 때 동아리에서 탈퇴하였다. 그건 정말 좋은 선택이 었다. 그 해에 담당 교사가 바뀌었는데 교사가 직접 선물을 강요하는 등 정말 교사까지 퇴물이 된 동아리가 되었다.

> 모든 동아리가 90° 인사를 강요하고 금전착취를 하지는 않지만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인권침해는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

[학내 종교자유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부활절 달걀을 삶는가?

지난 2004년, 강의석 씨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인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종교학교인데 예배를 듣는 건 당연하지." 대광고를 상대로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명목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종교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금' '네가 선택해서 온 학교가 아니냐, 알고 오지 않 으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2007년 1심 승소, 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체 과목을 만들어야 합 았냐,학교가 기독교 학굔데 어쩌겠냐.' 2008년 2심 패소, 2010년 3심 승소 판결을 받는 니다." 동안 '종교의 자유'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1년 겨울부터 2012년 조례가 공포되기까지 기독교계의 '명지고'재학생이었던'이응'의 말이다. 필자와 이 며 그러므로 자신들의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 을 받았었다. 조례 공포 이후 명지고 종교의 자유 체 과목 선택이나 듣지 않을 선택은 없었다 사건으로 '종교의 자유'는 다시 언론에 등장하게 되 필자의 학교의 경우 연례행사마다 현금을 내기도 <헌법> 제20조에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년여에 걸친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올 목격하곤 했다. 즉, 내지 않을 선택지 따윈 이미 유, 개종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인한 '당연하지 않았던 당연한 권리'의 주장이 가능 없는 것이다. 더 나쁜 점은 이런 헌금에 '학교발전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를 외부의 강제로 표명하지 않 해진 점 등, 종교의 자유는 언론을 통해, 관련 교육 이나 장학생들을 위해'라던가 '불우이웃들을 위해'란 을(불표현)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종교 계를 통해 많이 표면화되었다. 종교의 자유 의제가 명목으로 미화시켜 내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단순 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 뚜렷이 언론에 떠오른 이후 학교는 학생들의 종교의 헌금을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닌 '남을 돕지 않 고, 마지막으로 선교활동 및 종교 교육의 자유가 있 자유 보장에 있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까?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학 통해 부활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의 사례를 더 가시적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난다. 사했다.

간, 종교과목이 한 시간 정규 수업으로 편성되어 있 적으로 따돌렸고 여론을 조작, 고정했다. 마지막으 하는 종교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으며 학교들은 이 다. 연 기독교 행사로서 예배가 변형된 특별 예배가 로 이런 행위들로 말미암아 '이응'이 학교를 스스로 를 지키려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종교학교 있고(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이때 헌금을 걷기도 나갈 것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다. 영서의 경우 아직 들은 전통과 종교학교란 이름으로 자신의 의무와 법 한다. 명지고는 특이하게 학기말에 '부흥회'라는 것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몰랐을 때 1학년 말 '찬송가 적인 사항을 알리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음으로써 을 두어 온종일 부흥회 관련 행사만을 한다고 한다. 경연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묻지 않은 점을 의아하 학생의 인권을 짓밟아왔다. 그러는 와중에 학생들은 예디고와 영신여고의 경우 1, 2확년들이 학년 말에 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자신의 양심을 억압당하고 종교를 강요당하는 삶에 찬송가 경연대회를 한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아침 으로 목소리를 내었는데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질 익숙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한 시점에 학 방송으로 찬송가가 흘러나온다거나 교사들이 돌아가 책을 받았다. 후에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알고 외 생들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목사의 설교가 나오기도 한 치면서 한 학내 캠페인 이후 담임의 상담이 이어졌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 옳은 것인가 다. 이렇게 공식적인 '기독교 행사' 말고도 체육대 다고 한다. 회, 방학식 등의 의례적인 학교 행사에 식전 기도나 학생들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체과목 도를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배가 있단 것도 그 특색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교 을 신설하라고 하거나 듣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라고 육에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조차 없는 듯하다.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임신, 출산, 성적 지 응, 영서의 학교는 종교과목 개설 후 대체 과목을 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반발과 만들지 않거나 만들더라도 종교 수업을 이수하도록 진정한 종교의 자유일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학생 그를 둘러싼 찬반 의견으로 종교 관련 의제가 주목 학교에서 회유했다. 교실 수업이건 매주 예배 건 대 의 종교의 자유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일까?

했다. 그때마다 교목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선교부 여러 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가운 비교적 '학생'에게 와 닿는 이름의 조례 등장, 3 학생이 칠판에 '헌금, 최소 1,000원부터'를 적는 것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유는 신앙 선택의 자 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주변에서 받아들이거나 비난 다. 종교 사학에서의 종교 강요는 종교사학재단의 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이다.

서로 그 증거가 남아있다. 덧붙여 교사들이 '학생회' 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ㅋㅋ 인용) 를 움직여 '교내방송'으로 '학교를 아프게 하는 행동

하면 학교 교사나 교목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학 생들을 회유한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종교교육을 할 권리라고 하

선교활동 및 종교 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 유가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 내 종교의 자유 침해는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 '종교, 양심의 자유'또는 '신앙의 자유'를 자각한 교활동이나 종교 교육의 자유가 타인에게 종교를 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학생의 언론을 학생이 학교 측에 이를 주장하면 강요의 형태는 좀 '강요'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교의 자유'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내면적 권리인 신앙의 모으고 명지고등학교(이하 명지고) 제학생이었던 '이 학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자유이며, 선교활동 및 종교 교육의 자유가 종교를 응이(활동명)'와 예일디자인고등학교(이하 예디고) 었던 '이응이'의 경우에 대체과목 신청자들을 설득하 '강요'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더 우 재학생인 '영서(19)'를 만나 다른 학교의 사례를 조 라는 '교원 내부 협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문 선되는 인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머리에 피

공통으로 학년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예배가 한 시 을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이응을 전교 결국 '학교가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이 말 생각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행동을 통해 학교의 태

-OX 퀴즈-

- 1)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2)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만든 것이다. ()
- 3) 학생회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연습시키고자 만들어졌다.()

[계급은 성적순?]

분반수업, 나의 클래스는?

학생들이 시끌벅적하게 칠판 앞에 모여 있다. 울상인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 학생들의 화제는 지난 시험에 따른 수준별 분반이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한다. 주로 영어나 수학과 같은 주요과목에 분반 수업을 적용한다. 학교 측에서 말하는 수준별 분반 수업의 목적은 성적이 서로 비슷한 학생끼리 그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듣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 반의 성적을 평균을 내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교사를 배치해 다른 수업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반 수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성적순으로 나뉜 학생들을 보는 주위의 시선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 반이 오른 친구를 보 면 동경의 시선을 보내거나, 청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작년 필자의 교실에서 벌어졌던 풍경이 그러했다. 한 단계 높은 반에 올라가게 된 학생 의 주변에 친구들에 몰려와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고 그 학생은 '반에서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었다.

그에 반해 반이 떨어지거나 낮은 친구 뒤에서는 소리 없는 험담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 경우는 심하지는 않지만, 항상 반이 낮은 학생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 눌 때 조심스럽게 험담이 나온다. '얘는 원래 수업시간에 항상 자잖아.', '맞아, 숙제도 매번 안 해오고.'라는 식으로 험담이 시작되면 그 친구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각 반에 들어간 교사들마저 학생들을 차별한다. 어떤 교사는 '여기는 하위권 반이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매우 나쁘다.'라는 발언을 한다. 심지어는 졸고 있던 학생에게는 '저렇게 자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학생이 바라보는 중에 창피를 주기도 한다. 다른 교사는 '너희는 상위권 반이니까 하위권 반보다 시험을 당연히 더 잘 보아야 한다.'라며 상위권 학생의 좋은 점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우회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을 욕한다.

이렇듯 수준별 분반 수업이 점차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반이 나뉘면 그에 따라 대우가 달 라지는 모습이 계급사회의 한 장면과 흡사해 보인다. 학교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계급사회의 타파를 위해서는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 교육청에서는 당 장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권에 관한 책 소개

나는 이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더 정확하는 이 기사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나 스스로 '고등학생이고 한창 공부할 나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주위의 억압들을 무의식적으로 긍정할 때가 많았다. 이런 나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책들은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들을 신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권해주고 싶다. 당신이 만약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얼마나 많은 권리를 청소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잃고 있는지 직시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인권은 대학가서나 누리라고요?

책의 서문, 맨 첫 번째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 # 1991 # 1991 # 1991

'청소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한다.'

이 책은 왜 청소년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 한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실제 청소년들의 일화 나 사회적 뉴스를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설명하 며 중간중간 청소년들이 그린 그림들은 행복하지 못 한 자신들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체 벌 금지나 복장 자율화 등에 대한 논리적, 제도적 근 거가 알기 쉽게 나타나 있다.



불편해도 괜찮아

이 책의 핵심은 '불편함'이다. 불공평함을 보며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인권 감수성의 메인이라는 뜻이다.

작가는 '학생도 어른과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시에, 고백한다. 자신은 딸 에게 학벌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학벌은 중 요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네가 공부를 열 심히 해서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상관없다. 그런 데 목표하던 대학을 가지 못하면 평생 열등감에 빠져 살기 쉽다. 네가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 을 자신 있다면 공부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 며 딸의 마음에 열등감이 들어갈 틈을 만들고 말 았다는 부분이다. 사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번하지 않은가!

학교의 풍경

이 책은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쓴 글 인만큼, 교사 의 입장에서 학생 인권을 볼 수 있다.

교사로서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언제나 학교 시스 템에 의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 고 그래서 본질적인 구조문제와 마주치기로 한다. 이 고민은 모든 대한민국 교사의 공통된 고민일 것 이다. 이 책에서 독자는 학생인권의 적으로서의 교 사가 아닌 교사 역시 입시 위주 교육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나의 권리를 말한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 즉 인권을 항목별로 나눠 설명한 책이다.

행복추구권이나 종교의 자유와 같이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 언급한다. 재미없고 따분하게 설명 하기보다는 그에 따른 몇 가지 일화를 들려주며 내용을 풀어나간다. 일화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가 탄압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 최지은-

~잠만상식~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명하기 위해 축하서한을 보냈다. 받는 사람은 서울시의회 의장 처광태 씨. 근데 학생인권조례를 무 효화하려던 교육부장관 이대호 씨랑 부교육감 이대명 씨한테도 같이 보낸 것이 함정이다.

!) 교육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정부는 학생들의 표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지금 대진고는 교사들이 빡세게 잡는 학교로 유명하지만, 예전만 해도 교사가 그럴 수 없었다. 1989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들끓어 오르면서 학생들을 향한 역압이 최고조를 달릴 때, 대진고등학교에서는 7월 14일, 15일 이를 동안 전교생 2천 5백여 명이 운동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고 결국 교장이 사과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에도 8월 4일에는 학생 37명이 밤 10시까지 농성을 했고, 12일에는 보충 수업 때 농성을 했다. 동시에 8월 11일부터 4일간 밤샘공부 시위를 하기 도 했다. 또한 성동고등학교, 인헌고등학교와 함께 연합 집회를 열기도 했다.